서울동물원 기린 순산 지난 2월 15일 17시45분. 서울동물원 제 1아프리카관에서는 암컷 기린이 출산하는 경사를 맞이했다. 1년 6개월 만의 경사이다. 기린 꿈은 예로부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사람, 부귀한 사람, 일거리, 재물, 명예, 작품 등을 상징한다. 아빠 제우스(92년생)는 서울동물원 보유 기린 중 가장 덩치도 크고 힘도 강해 서열 1위의 자리를 굳히며 어미 '헤라' 와 함께 해 오면서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새끼를 낳아 그 중 한 마리는 일본으로 역수출(2008)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 발상의 전환 필요"

이 대통령 "일자리 찾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책 고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아마도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자신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나라가 일자리 창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민간과 최대한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민간의 세세한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비효율을 부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연근무제는 '복지' 와 '일자리 창출' 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부는 우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면서, "이 또한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전정신, 자활의지와 스스로의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많이 아쉬움을 표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 줄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필요한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 이라고 말씀했는데, 직업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구직자와 구인회사들 간에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은 정부가 충분히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렇지만 시스템을 갖춰도 정작 당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것인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직장을 갈지, 안 갈지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며, "결국 일자리를 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하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교육복지 인천! 학력으뜸 인천!

인천인터넷교육방송·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MOU 체결

인천광역시인터넷교육방송(회장 서한샘)과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석진)은 저소득층·소외계층 자녀들에게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I Start운동(사회장학 교육운동)' 을 공동 전개하며, 인천의 초·중·고 방과후학교에 잎새방송 교육시스템 및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사업 전반에 대해 공동 협력키로 2월 22일 인천교총 대회의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인천교총-잎새방송 협약 체결식' 을 22일 인천교총 대회의실에서 가졌다.(왼쪽부터 잎새방송 서한샘 회장, 인천교총 윤석진 회장)

인천교총 윤석진 회장은 "인천도심, 도서 지역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인터넷교육방송과 장학 사업을 함께 전개하여 인천교육 복지운동의 정착과 확대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인천의 학력증진과 저소득층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고자 멘토링 관리교사 양성 및 운영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공동 기획하여 '교육 복지 인천', '학력 으뜸 인천' 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병태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아이들 웃음속에 푸른꿈을 빚으며' 출판기념회

인천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인 유병태 교육위원의 '아이들 웃음속에 푸른꿈을 빚으며' 출판기념회가 2월 20일 인천 가림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유 위원은 초등학교 평교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40 여년 동안 초등학교 교감, 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지역교육청(인천 서부교육청) 교육장 등을 거치며 겪은 경험과 지식, 교육관 등을 소박하면서도 담담한 어조로 이 책에 담았다.

유 위원은 인사말에서 책의 제목에서 사용한 '푸른꿈' 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징한다고 말하며 "지난 40 여년 간의 교직생활을 되돌아보며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 위원은 자녀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더욱 낮은 자세로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권진수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전년성, 가용현 전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전현직 교육계인사들과 김교흥, 문병호, 유필우, 이기문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유 위원의 첫 발령지였던 경기 연천군 은대초등학교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교포·외국인대학생 영어봉사 효과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TaLK) 장학생 프로그램' 이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에 'TaLK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를 시행한 결과 참여 학생들이 수업만족도에서 71%, 영어 흥미 향상에서 67%, 전반적 영어 능력 향상 부문에서 61% 비율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대답이란 이들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이루어진 5개 선택 문항에서 '그렇다' 나 '매우 그렇다' 를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교과부는 또 TaLK 프로그램이 학교 영어 교육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부모의 7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원어민 장학생들도 한국의 이해 증진에 대해 93%, TaLK프로그램 추천 의향에 대해 8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의 77%가 원어민 선생님은 영어를 잘 가르쳐주신다고 응답하는 등 장학생들의 영어지도 능력도 '우수' 평가가 다수였으며, 교사와 학생, 장학생 간의 협조도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aLK 프로그램은 교포 자녀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대학생 등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국내대학생들과 팀을 이뤄 농어촌 등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중독 대책 성인까지 확대

정부가 성인의 게임 과몰입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현재 운영중인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게임 과몰입 대응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게임 과몰입 문제가 성인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TF의 주요 정책 대상에 성인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1차로 내달말까지 TF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 범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과몰입 등 역기능 해소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나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를 의무화하는 등 업체들이 과몰입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도 참여해 게임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게임산업의 양적인 성장에 걸맞는 건전 게임문화 조성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고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팀' 을 운영해 오고 있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집중력훈련 잘하면 영어 성적 오른다

집중력 강화 프로그램 '브레인오아시스'…현직 교사 논문 인용해 결과 발표

정기적인 집중력 강화훈련이 학습부진아의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직 교사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집중력 강화훈련 온라인 프로그램 '브레인오아시스(www.brainoasis.co.kr)'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교육지대(대표이사 장정호)는 대전 소재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윤선영, '온라인 주의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이 영어교과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010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회사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윤 교사는 '온라인 주의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이 '영어교과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가운데 다교과 부진아(2개 교과 이상 기초학력 미달)와 영어교과 부진아(영어 기초학력 미달) 12명을 대상으로 회사의 집중력 강화 온라인 프로그램('브레인오아시스')을 이용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오전시간과 방과후로 나누어 매주 2회씩 3개월 동안 모두 24회에 걸쳐 진행됐다.

1회 당 수업시간은 학습 부진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30~40분 정도로 진행됐으며 훈련 프로그램은 주 2회 온라인 수업 시간에만 사용했다.

윤 교사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대상 학생들의 훈련 전후 영어성적(2009학년도 1/2학기말고사, 대전광역시 교육청 주관)을 비교해 집중력 훈련이 영어 교과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시청각 주의집중력 등 주의력 평가도 실시해 대상 학생들의 '주의집중력' 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도 관찰했다.

그 결과 대상 학생들의 평균 영어성적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보면 '다교과 부진아' 들의 경우에는 훈련 전 38.3점에서 훈련 후 59.2점으로 20.9점이 올랐으며 영어 교과 부진아들의 경우에도 훈련 전 60.8점에서 훈련 후 72.5점으로 11.7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성적 향상은 훈련이 진행된 해당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의 평균 영어성적 향상 정도와 비교할 때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4학년 : 88.9점➡ 91.1점 2.2점⬆, 5학년 : 84.2점➡89.6점 5.4점⬆).

한편 '주의집중력' 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다교과 부진아' 들의 경우 'ADS(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시스템)' 을 이용한 시청각 검사에서 '누락 오류', '반응 시간' 및 '오경보 오류' 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의 신경심리기능을 평가하는 심리검사인 CCTT-1, CCTT-2, Stroop 등의 검사에서도 훈련 전에 비해 향상된 결과가 관찰됐다. 영어 교과 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관찰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학습부진아들이 수많은 많은 환경 자극 중 필요 자극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오랜시간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부진아 각자의 담임교사에 의해 진행된 설문 검사에서도 집중력이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관찰됐다, 학습부진아들의 주의집중력 변화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태도/행동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브레인오아시스 박세염팀장은 "집중력 향상 온라인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들의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학습능력이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결과"라고 말하며 "주의집중력 변화가 학습부진아들의 학습능력은 물론이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양원석 기자

NEWS FOCUS

올 수능시험 11월 18일 G20과 겹쳐 1주일 연기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과 겹쳐 일주일 연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당초 올해 수능시험을 11월11일 치를 예정이었지만 G20정상회의 일정이 11~12일로 정해져 수능과 겹침에 따라 관계기관과 조율을 거쳐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로 인한 교통통제, 경찰인력 부족, 각국 정상들의 차량이동 시 소음발생 등이 수능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예 시험일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은 11월18일, 성적통지는 채점기간을 단축해 당초 예정(8일)보다 3일 늦춰진 12월11일 시행된다.

수능시험일과 성적통지일이 연기됨에 따라 대학별 전형일정도 일부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 및 등록기간, 정시모집 접수·등록·발표기간, 추가모집 일정 등 변경된 대입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05년에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18~19일) 때문에 수능시험일(11월17일)을 일주일 늦춘 적이 있다.

원활한 'Wee클래스' 프로젝트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지난 18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에서 'Wee 클래스' 를 운영 중인 각급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Wee 클래스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를 실시했다.

'Wee 클래스' 는 2008년부터 실시중인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일반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상담·치유·선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전문 상담 공간이다.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Wee 클래스' 를 운영하고 있는 임채원 선생님에 의하면 자신의 진로나 정체성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주로 상담을 의뢰한다고 한다. 현재 52개교에 설치·운영중인 'Wee 클래스' 에서 작년 한해 각종 상담을 받은 학생 수는 13,724명으로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27.48%에 이른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로스쿨 결원 다음해 추가 선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 외 추가 입학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돼 올해 2010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자퇴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정원 외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오태곤 기자

미취업 인문계 대졸자 직업훈련 밀착지원

오는 4월부터 미취업 인문계 대졸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밀착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대통령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 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월 말까지 올해 대졸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인문계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먼저 워크넷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훈련희망자의 지역별, 훈련희망 직종별 DB 구축하며, 이후 훈련희망자 전원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SMS를 활용해 정부지원 직업훈련제도 및 고용지원센터 전담 훈련상담원 연락처, 훈련생계비 대부제도 등의 기본적인 훈련정보를 발송한다.

이후에는 훈련희망자의 거주지 소재 고용지원센터에 전담 훈련상담원을 지정하고, 훈련희망자 개개인에 직접 연락해 훈련참여 독려 및 훈련상담 실시한다. 대학 취업지원실 및 폴리텍대학·대한상의 등 훈련기관에도 훈련희망자 명단을 통보, 훈련정보를 제공하며 훈련생 모집시 우선적으로 선발토록 한다.

또한, 올해 개설된 1만 3668개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을 활용해 이들이 원하는 때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개설된 훈련과정으로 부족할 경우 상반기 중 과정 추가 개설한다. 전국 폴리텍대학(38개 캠퍼스)에는 컴퓨터출판디자인, 웹프로그래밍 등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특별훈련과정' 을 편성·운영하며, 상반기 중 2~3개의 대학을 공모·선정해 취업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일반실업자훈련이 제공하기 어려운 고급훈련과정 신규 편성·운영한다.

훈련종료 후에는 우수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알선 실시한다.

훈련참여자 전원에게는 훈련비용(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20% 자비부담) 및 월 11만 6000원의 교통비·식비가 지원된다. 또, 훈련기간 중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장기·저리로 대부준다. 대부 조건은 월 100만원, 최대 600만원 한도이며, 연리 1%,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다.

2009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대졸자 중 인문계열의 취업률은 68.6%로, 공학계열 77.7%, 자연계열 73.7%보다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중 임시직 비율은 49.8%로 공학계열 24.7%, 자연계열 43.4%보다 높다.